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아태지역 북경+10 NGO 포럼
AP NGO FORUM ON BEIJING+10

민무숙 교육연구부 연구위원
조은희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이선주 정보·협력연구부 연구위원

1. 회의(또는 연수과정) 명 :

국문: 아태지역 북경+10 포럼

영문: AP NGO Forum on Beijing+10

2. 회의배경

1995년 9월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89개국 대표들은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12부문의 주요관심분야를 정하고 각국 정부, 국제사회, 비정부기구 및 사적부문이 택하여야할 전략목표와 행동을 규명하고 있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여성은 북경행동강령을 통해 여성만이 아니라 여아를 중요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근본주의적 이데올기, 테러와 기술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법만이 아니라 젠더 관계와 이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을 위한 건강권 확보,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정부 기관과 UN에 젠더 균형 등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에 발생하는 강간을 전쟁범죄로 다룰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젠더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항하는 공공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도는 이러한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내용들이 재검토되고 평가되는 해이다.

2004년 9월7일-10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자회의에서 각 국의 정부는 북경행동강령의 시행 평가와 더불어 현재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젠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북경행동강령의 시행에 대한 재검토 및 평가와 결과보고로써 2005년 3월에 개최되는 여성지위위원회 확대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현재 UN은 북경+10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UN의 지역회의 개최에 대한 결정과 이에 대한 진행을 자유로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경+10에 대한 UN 관점의 일치성 확보는 질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질문지는 북경+10 검토 및 평가 회의를 위한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태지역의 여성 NGOs은 북경+10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재검토와 평가의 과정이 되는 9월 UNESCAP 정부간 고위자회의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2004년 6월 방콕에서 AP NGO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자회의에 지역 NGOs의 의견과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2003년

11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위민와치(the Asian Pacific Women Watch, APWW)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APWW가 2004년 아태지역 NGO 포럼의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을 주도였으며, 2004년 2월 13-14일 24개 지역의 여성 NGO 대표자들과 소지역 및 국가 차원의 여성대표자들이 아태지역 북경+10 포럼의 주최자가 되어 회의를 준비하였다. UNESCAP의 새로이 출연하는 사회 문제 부서의 젠더와 발전 섹션(the UNESCAP Gender and Development Section of the Emerging Social Issues Division) 또한 이 준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발기에는 동북아시아와 남동아시아의 UNIFEM 지역사무소가 주요한 파트너로 포함되었다.

3. 회의목적

가. UNESCAP이 2004년 9월 7-10일 개최하는 북경+10에 관한 정부간 고위자의 회에 대한 준비로써 2004년 6월30일-7월3일 태국의 방콕에서 아태지역의 NGOs포럼을 개최한다. 2004년 아태지역 NGO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중요시 논의한다.

- 1) 북경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의 이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및 경향을 살펴보고, 아태지역 GO와 NGO 모니터링 보고서의 북경+5 결과보고를 고찰한다.
- 2) 북경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권고와 교훈을 찾는다.
- 3) 최근이 경제, 정치, 기술의 발달과 테러리즘, 근본주의, 자민족중심주의의 성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발표한다.

나. 2004년 아태지역 NGO 포럼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1) “퍼블북”제작
 - BPF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평가
 - 12개의 주요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장애물에 대한 평가
 - 최근에 발생하는 젠더문제에 대한 분석
 - 기존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분석
- 2) 젠더과 발전 장터에 참가한 성공적인 NGO 프로젝트의 카달로그 전시
- 3) 로빙 전략

4. 참가자 규모

총 900명: 아태지역의 NGOs, 학술단체 및 개인

한국참가자: 여성단체 연합 및 관련 여성단체, 여성개발원 등 총 39명

5. 회의기간 및 일정

가. 회의기간: 2004년 6월 30일 - 7월 3일

나. 일정(첨부 1):

6월 30일(수):

오전: 등록

개회사(H.E. Tanin Kraivixien, 프리비 카운슬러)

환영사, 포럼 단평,

오후: 필름 페스티벌

스페셜 워크숍:

- 로비와 북경+10 과정(아태지역 위민와치)
- 카이로와 북경+10과정에의 청소녀·년의 의미 있는 참가와 협력(아태지역 청소녀·년의 네트워크)
- 성 주류화: 실제 이야기(SEAWATCH)

7월 1일(목):

Plenary Session1: Celebrating Women's Gains... Confronting Women's Issues

개회 첫 세션인 본 장에서는 북경회의강령이 지난 10년간 무엇을 성취하였고, 무엇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목적이었음. 이번 NGO 포럼의 주최 총회장인 Patiricia B. Licuanan(필리핀)은 첫 번째 연사로 발표하였음. 그녀는 BPA가 이룬 성과를 각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관심제고와 법적 정비, HIV/AIDS를 비롯한 여성의 건강문제의 인식 향상, CEADAW의 역할등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형태로 네트워크화 되었다는 점등을 꼽았음. 그러나 여전히 각국은 북경강령과의 현저한 격차를 가지고 있고, 특히 MGDs의 연계 및 젠더관점의 강화,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계가 과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하였음.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인 신혜수 CEDAW 위원은 각국이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인 CEDAW 협약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의 성취, 한시적 적극적 조치 등에

대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권고함. 세 번째 발제자인 Nurgul Djanaeva(Kyrgyzstan)는 초국적인 협력과 네트워크가 없는 북경행동강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여성들의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촉구함. 이주노동자, 성매매 등의 국제적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제도적 마련을 통한 집단간 연계강화와 정보교류, 높은 국제적 기준과 여성들의 초국적 단합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함. 네 번째 발제자인 태국의 경제학 교수인 Pawadee Tonguthai는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내 한 부분인 성평등조항과 2005, 2015년까지의 남녀간의 교육격차 해소목표(Time-Bound Target)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지표의 설정 및 달성을 촉구하였음. 마지막 발제자인 Vanessa Griffen(Pacific)은 북경행동강령이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필요로 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국마다 처한 상황의 차이를 지적함. 특히 상황이 가장 나쁜 여성 집단에게는 그동안 성취된 것은 크게 없었으며, 태평양의 많은 섬 국가들은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별로 진전이 없다고 평가하였음. 현재까지의 방법보다는 보다 강하고 비판적인 접근, 또한 특정적, 구체적인 방법의 접근이 향후 보다 많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함.

Plenary Session2: 이슬람사회에서의 아시아 여성(Asian Women in Muslim Societies: 전망과 투쟁(Perspectives and Struggles))

파키스탄의 Farida Shaheed는 발제에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따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음. 이슬람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태, 예를 들어 여성의 성기 변형 등 여성 억압적인 그들의 전통(?)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 있음. 그녀는 힐링턴의 '문명의 충돌'에서도 이슬람사회와 서구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난하였다. 이슬람사회를 특별히 취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이슬람사회는 세계에서 소외되고, 분류되고 있음. 그녀는 이것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근본주의자들의 폭력, 그룹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집단의 인권에 대한 무시, 이러한 것들은 모두 권력에 대한 싸움이다. 그녀는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닌, 획일화 시키려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종교를 통해 여성을 탄압하고자 하는 근본주의자들,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법에 대항하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슬람사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리고,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적 연대를 보다 돈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7월 2일(금):

Plenary Session3: "Transnational Women's Movements: Challenges and Future Politics in the period of Globalization and War"

베이징 모임에서 여성의 네트워킹 그리고 국내-외적인 여성운동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알렸다. 국내-외적인 여성운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은 무엇인가? 이는 중요한 문제임.

일본의 발제자 Hisako Motomaya는 구제국주의는 무너졌으나 신제국주의가 대두되었다고 말한다. 일본은 일본헌법 제24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일본 자위대를 전쟁에 파견하는 것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함. 신제국주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권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여성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필리핀의 Jeanne Franses Illo는 여성학적 실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조적, 제도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음. 시민권의 확보와 가부장제도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알권리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서구세계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아시아적인 여성학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뉴기니아의 Ruby Kenny는 레즈비언 여성의 권익에 대한 발표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과제가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것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레즈비언이 특별한가? 외형상 여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성운동은 보다 많은 집단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Plenary Session4: Women's rights, Democrac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여성의 권리,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도전)

주 발제자인 Kamala Chandrakirana는 북경세계여성대회가 국가적·국제적으로 여성운동 활동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 대회에서는 여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음을 지적함. 북경대회가 개최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력,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과거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역 사회나 고향을 떠나야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함. 이들 중의 많은 여성은 이주 노동자가 되거나 인신매매단의 희생물이 되어 성적·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음을 주장함. Chandrakirana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힘의 증진을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함.

중국의 Huang Shu는 권리에 바탕을 둔 빈곤 감소에 대한 접근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지구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공식 일, 법적 인 보호 결여, 저임금화, 빈곤 지역의 건강, 교육, 물 자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는 여성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우즈베키스탄의 Gulnora Makhmudova는 여성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시스템, 사회·문화적인 가치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함.

한국의 정현백은 여성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구화에 대한 반대보다는 지구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지구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7월 3일(토):

마지막 날은 3일간 이루어진 전체 세션 및 개별 분야 워킹숍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북경행동강령 12개 분야에 평가와 향후 제언을 담은 final declaration를 3시간가량에 걸쳐서 참가자 전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 이 과정에서 각국 혹은 각 집단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와 쟁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발언을 하면서 수정 보완과정을 통하여 최종 문안이 작성되고 선언되었음. 향후 8월중에 회의 주체단 홈페이지에 등재되고 참가국 대표진에게 배부되어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함.

<관련 워킹숍 참가>

- Women's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워킹숍은 동아시아 지역 여대 연합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필리핀, 일본, 대만, 인도의 사회학 및 여성학 관련 교수들이 발제를 함. 필리핀 발제자인 Patiricia B. Licuanan(필리핀)은 고등교육과 국가발전과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여대의 필요성과 기능, 나아가 여성리더들의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두 번째 발제자인 일본의 교수는 일본 역시 1994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겪었는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모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을 지적함. 일본은 경제체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성인들이 재교육을 위하여 대학으로 리턴하면서 젠더문제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함. 그러나 일본 역시 젠더 문제에 대한 backlash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현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개설할 경우 남

성들이 자연히 젠더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교재에 삽입하고 있다고 소개함.

대만의 경우, 대학 내에서 젠더문제가 크게 이슈가 된 계기가 몇 년 전 유명한 여성정치인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었으며, 이후 학자 및 교육 관료들이 성희롱 및 젠더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고 함. 교육 분야에서 지적되는 평등의 문제는 교육내용이나 과정, 진로편중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인데 지난 2000년 이후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초안을 만들고 2002~3년에 걸쳐 공청회를 통하여 남녀평등교육에 관한 법안(5분야, 38조문)을 마련하였고, 최근 통과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음. 우리의 경우, 남녀평등교육에 관한 단독 법안이 없는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되며, 그러한 정책기제의 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Testimonies: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on Women and Human Rights

남아시아 국가들의 빈곤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남아시아 국가들, 즉,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6개국의 여성운동가들은 이들 국가의 여성운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연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전략은 지역활동(region action)을 해나가는 것이며, 교육, 지역연대, 지역세미나, 국가들 간의 프로그램교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연대는 여성의 인권을 증진해 나가며, 폭력에 대항하고, 여성간의 성장 도모를 연대하고 있다. 이들 연대는 163개국 기관과의 연대활동과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여성운동가들은 체계를 갖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며, 국가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가족, 직장, 공공장소 등의 사회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인도네시아나 남미 지역에서의 여성인권운동은 농촌여성이나 빈곤층 여성의 우선적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의 자치성 확립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들 여성운동가의 앞으로의 과제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성인권운동가의 인권보호, 여성의 영향력을 증진,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이념전쟁 혹은 부정적 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 Skills Training Workshop: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GO and NGO

GO와 NGO의 관계의 힘의 불균등함을 지적함. GO의 역할을 NGO가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GO가 할 일과 NGO가 할 일이 다를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함. NGO가 GO를 대상으로 로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제시함.

- 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GO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나. NGO는 로빙 시 로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 다. 지방 관료와 면담 때에는 피드백을 할 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매스미디어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함.
- 라. 관료와의 회의 시 주어진 시간 안에 의도한 것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함.
- 마. 관료와의 회의 중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도록 함.
- 바. 회의가 향후 지속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

6. 참가자 역할

- 가. 북경+10에 관한 아태지역 NGO의 자료수집
- 나. 각 섹션 별로 관련 분야 참가자들의 발표 및 토론 참여
- 다.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7. 평가 및 제언

- 가. 북경+10에 대한 아태지역 NGO의 다양한 입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태지역에서 한국여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나. 2004년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아태지역 정부간 고위자회의에 개발원의 연구원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함.
- 다. 각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 사회, 문화, 정치, 제도 등의 다양성을 어떻게 응집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 예를 들어 sex-worker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국가와 이 용어 자체를 수용할 수 없는 운동가들은 어떻게 서로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지구의 여성은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응집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아시아-태평양지구의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이러한 모임은 강한 연대의식을 앞으로 계속 견고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이들 국가 중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은 한국은 많은 제3세계의 개발 국가들의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라. 동 회의에서는 그간 북경회의나 여성관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이슬람 여성들의 문제, 동성애 여성들의 인권문제와 young women 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즉석에서 caucus가 형성되고 집단의 발언문도 독자

적으로 발표되고, 최종 문안에도 삽입되는 등 새로운 집단들의 부상이 있었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호칭 문제(sex-workers/prostitution) 역시 국가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

마.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평화운동, 통일운동, 빈곤 및 환경문제, 여성정책 조직과 governance 등 여러 섹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전체 주제발표 등에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을 전체 회의에서 문제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동 기간 중 정신대 할머니의 사망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즉석에서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추모 및 전쟁반대를 위한 간략한 시위가 타국 단체들과의 연대 하에 이루어져 주목을 끌었음.

바. 국내 여성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외국 단체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새로운 이론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돋보인 한편, 처음 참가하는 참가자들도 상당수 있어서 단체들 간의 효과적인 사전 준비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음. 관련하여 여성개발원 연구자들이 북경이행강령에 대한 정부, 비정부 평가의 흐름이나 여성정책 이론의 변화 흐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8. 수집자료 목록

가. Farida Shaheed(2004), Asian Women in Muslim Societies: Perspectives & Struggles

나. Japan Women's Watch (2004), *Japan NGO Report 2004 for Beijing+10*.

다.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2004), Gains and Gain of Korean Women Policies for the past 10 yea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next 5 years.

라. Beyond Beijing Committee(2004), Nepal, Beijing and Beyond: Beijing+10 NGO Country Report.

마. Speak out, take action(Sex workers organisations in Bangladesh, cambodia and India.) in thailand

바. women's policy guideline in Taiwan, commission on women's right promotion, executive Yuan.

사. Image of women in Taiwan, foundation of woman rights promotion and development

아.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Regional Network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Asia Pacific Region (2004, 7)

자. Strategy of Women's Movement for Alternative Globalization(정현백)

차. Comments on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of Japan to the questionnaire on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카. Kamala Chandrakirana(2004), Women's Rights, Democrac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